

아시아공동체는 필요한가?

아시아공동체론 에세이

출석번호 40

사학과 201521699 김효진

지난 학기 박성빈 교수님의 일본입문 수업에서, 교수님이 관련 수업 및 관련 활동 등을 설명해주셨고 거기서 '아시아공동체론'이란 수업을 알게 되었다.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한일월드컵 당시 일본이 16강에서 8강으로 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을 때, 누구를 응원했을 것 같냐고 물으셨고, 일본은 한국을 응원했다고 답해주셨다. 반대의 상황이 되었다면, 누구를 응원했을 것이냐고 물으셨고, 나를 비롯한 선불리 일본이라고 답할 수 없었다. 교수님은 이러한 이유가 바로 '아시아'란 지리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이에 '내가 아시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문득하게 되었고, 한 번도 국제관계를 이야기하거나 이를 접하고 나에 대한 생각을 펼칠 때, 한국인이라는 입장에서만 생각해왔을 뿐 아시아, 유럽 등 지역적 범주에서 생각해본 적이 없음을 알았다. '아시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알아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아시아공동체론'이란 수업을 듣게 되었다.

수업의 첫 시작은, '아시아의 개념 범위와 역사'였고 이왕휘 교수님은 아시아란 지리적 범주가 각 국가에 따라 다르며, 많은 국가들이 아시아란 용어를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셨다. 이러한 '아시아'란 지리적 범주가 '유럽'에 비해 왜 명확하지 않고 지리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했음을 알려주셨다. 바로 이는 역사와 현재의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으로 뭉쳤던 경험이 있으며, 그 시기부터 라틴어가 공유되었고 그 결과 유럽은 각 국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라틴어를 기본으로 하여 굉장히 유사한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이란 지역적 경제연합을 형성하고 있으며, 역사를 교육하는 방식에서 있어도 국가사가 아닌 지역사를 중심으로 한다. 이처럼 유럽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역적 정체성이 성립된 반면, 아시아의 지역 정체성은 뚜렷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시아가 중요할까? 세계 경제의 중심이 거의 대부분 아시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아시아는 국가적인 개념보다는 지역적인 범주에서 교류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란 지리적 범주의 정체성을 성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수업에서는 아시아에 어떤 공동체가 존재하는지,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어떤 현상으로서 아시아공동체가 형성되고 보여 지는지, 그리고 각 국가의 참사관님들의 강의를 통해 일본과 중국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박성

빈 교수님이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때와 마지막 강의를 하시면서 던진 질문인 '아시아 공동체는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아시아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은 어떠한가?', '형성을 위한 조건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공생과 공영의 미래사를 다지기 위해선, 아시아공동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경제의 중심은 아시아로 이동했으며 아시아 지역은 이미 경제적인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상호 우호적인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선, 먼저 '아시아'에 대한 정체성 성립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 내에는, 지리적 범주만 존재할 뿐 지리적 정체성이 미비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시아인들은 아시아가 세계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 스스로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의 경우처럼 역사 교육에 있어서도 한 국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닌, 지역사적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아시아의 국가들은 내셔널리즘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시아 공동체를 바라봐야한다.

또한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시점을 갖춰야한다. 아시아공동체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어떤 때는 과거, 어떤 때는 현재로만 인식하는 등 부분적인 인식과 이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때로 전쟁과 갈등을 낳아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 경험 등으로 얻는 정보들을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폭넓고 올바른 시점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또 다른 아시아공동체의 형성조건은 바로 '민심상통'이다. 한일관계와 한중관계가 역사적 문제로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류와 같은 문화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감정이 서로 통하는 것은 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쉽게 변화하고 있지 못한 구조적인 측면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이주의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사람·상품·자본·정보가 국경을 넘어 지구적 규모로 전개되면서 국제이주가 증가했으며, 최근엔 역내 이주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도시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모이게 되면서 글로벌 시티가 형성되었고, 이는 글로벌 시티 속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융합하고 창조하게 됨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도 역내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내 이주는 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